

2002년 11월 25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연설

존경하는 주신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장애인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 노무현입니다. (박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후보자가 또 한분 더 계셔서 오면 인사드릴 때 시간이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저는 두 사람 합쳐서 후보 한 사람되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제가 두 배를 시간을 쓰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 뭉만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 일일체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뒤늦게 했습니다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하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다시 눈을 가리고 걸어가서 귀를 막고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또 가리고 밥을 먹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가 익숙해지면 견딜 수 있는가 싶긴 한데 정말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저는 고통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또한 그 당시에 답답함, 그 이상으로 제게 아주 답답하게 느껴지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장애인 얘기하면 짧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분들이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조금 도와주는 것같이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장애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참여해서 똑같이 생활하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사회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일반적으로 특권이 없는 사회 이것을 제가 정치목표로 삼아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없는 사회는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따진다면 차별이 없는 사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권 없는 사회를 순위로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우선 장애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을 반드시 없애주는 것을 우리 국가와 사회의 업으로 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꼭 만들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만 쉽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어야겠다, 어릴 때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일찍 치료하고 장애가 없도록 해주고 우리사회 여러 영역에 있어서 위험성들을 최대한 줄여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서 부터 그 다음에 일단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비용부담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직업을 가지고 장애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비롯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여건들을 아울러서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그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와 그와 같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루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와 우리 당에는 특별히 스스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장애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토론을 해줄 김성순 의원님도 제가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해서 제가 뵈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당의 정책의장님도 오셨고요. 최영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이분들 많은 도움 받아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을 미처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 김성순 의원께서 여러 정책 중에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데 그것은 물론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꼭 직접 약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금제도 속히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는 그 정도만 했는데도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이런 권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활발할 수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를 위한 회관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박수)

밥을 떠먹여주는 것보다 스스로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떠먹을 수 있게 권익주장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관도 지어드리겠습니다. (박수)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도 정치인인데 하도 정치인들 말을 못 믿고 해서 저도 말을 하면서도 자꾸 주저해 집니다. 혹시 믿어주실까 해서 혹시 믿어주실 수 까 하는데 제가 책임 못질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해 왔고 또 한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때로는 국회의원 떨어지는 곳에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우선 한번 믿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항상 경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쟁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장경쟁만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고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함께 끌어안고 갈 때라야 우리가 비로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비로소 국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자꾸 박수를 치시니까 그만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줄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큰일을 못했지만 그 동안에 약자 편에 항상 서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같이 노력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때로는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노동변론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노동변론은 단지 노동쟁의 문제의 변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도 가끔 작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변론이 많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찌 보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신 분들 변론을 많이 해본 경험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가 무료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돈이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제가 무료변론을 하듯이 좀더 많은 예산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